

생산 혁신 컨설팅

제조 운영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생산기술 기능

생산기술은 개발 및 디자인에 참여하여 구체화된 것들을 구현·양산화 하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 분야는 고유 기술과 운영 시스템을 연결시키면서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품기술을 「 선행 기술 」 이라고 하면, 생산기술은 「 후행 기술 」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입니다.

향후에 양산하는 제조업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보이지 않는 경쟁력인 "생산기술력"의 향상이 불가결합니다.

생산기술에는 앞에서 설명한 설계도를 구현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 변환점 」 이기 때문에, 생산기술이 관여하는 기능·부문은 「 이노베이션

프로세스 」 「 공급망 프로세스 」의 각 부문과 다방면으로 연계됩니다. 이 관여하는 방법의 최적화, 「 모노쥬꾸리 시스템 」 전체를 파악하는 시스템의

최적화를 담당하는 부문이 생산기술입니다.

관여하는 폭과 깊이가 물건만드는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 생산기술 부서가 활약하고 있는 회사는 수익이 높다 」

라는 것입니다.

즉, 양산 하는 것을 잘하는 회사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건만들기를 견인하는 생산기술 부문의 역할을 첨예화할 필요가 있다

생산기술 부문의 5개 역할은 그 역할마다 유기적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일을 하는 역할, 현재의 현장을 바꾸는 역할, 각각마다 역할을 하면서, 제조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JMAC 생산기술 컨설팅의 특징

생산기술 업무 실태를 변혁해 갑니다

회사의 생산기술 실무에 들어가 실무를 개조 하고, 또한 전문가의 생각과 마인드에도 들어가 실태를 바꾸는 방법을 수행 합니다. 또한 컨설턴트 실무 +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이끌어 갑니다.

부문에서 전체로의 제조 프로세스를 개선

개발, 설계, 생산 부문에도 참여하여 생산기술 부문의 종합적인 힘을 발휘 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조 전과정의 개혁을 추진 합니다.

제조의 미래를 디자인

글로벌 전개, 생산기술의 고도화 등 미래를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향후 경쟁력을 통해 생산기술부문으로 만들어 갑니다. 또한, 그 실현을 위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생각 하는 인재를 육성 합니다.

이형주 : hjlee@jmac.co.kr

출처: http://www.jmac.co.jp/consulting/category/production/tech_renovation.html